

홍명보호 9월 美 원정 2연전... 일본과 간접 비교되나

9월 미국에서 치러지는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은 한국과 일본 축구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 맹주였던 한국 축구는 라이벌 일본 축구에 서서히 밀리는 분위기다.

양국 맞대결이 줄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가장 최근인 3년 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선 한국이 0-3으로 완패했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과 주축 선수가 빠졌으나, 일본도 완전체가 아니었던 걸 고려하면 참담한 결과였다.

한국은 2002 한일월드컵 4강과 두 차례 월드컵 16강(2010, 2022년)에 성공했으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선 일본에 최다 우승국(4회)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한국(23위)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에서 일본(15위), 이란(18위)에 밀려 있다.

호주(26위)와도 격차가 크지 않아, 언제 아시아 3위 자리를 내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축구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기회가 생겼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월드컵을 대비해 오는 9월 미국에서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

미국 뉴저지에서 한국 시간으로 7일 미국과 첫 경기를 치른 뒤 10일 멕시코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다. 다만 멕시코전 장소와 Kick-off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이 해외 원정 평가전에 나서는 건 2023년 9월 영국에서 웨일스, 사우디아라



9월 미국 현지서 미국 멕시코와 평가전 일본도 같은 기간 상대 맞바꿔 친선경기

비아와 맞붙은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미국 원정 평가전은 한국만 치르는 게 아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의 9월 평가전 상대도 한국과 같다. 일본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먼저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 미국과 차례로 붙는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스팅 파트너를 상대로 번갈아 대결하게 되면서 누가 더

강한 팀인지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 원정에 앞서 7월 안방에서 한일전이 먼저 열리지만, 손흥민 등 해외파가 빠지고 국내와 중심으로 치러져 진급 승부라 보기 어렵다.

미국은 FIFA 랭킹 16위고, 멕시코는 17위다. 두 팀 모두 한국보다 랭킹이 앞선다.

다만 미국과 상대 전적에선 한국이 5승 3무 3패로 앞서고, 멕시코는 4승 2무 8패

로 열세다. 일본도 미국에 2승 1패로 우위지만, 멕시코에는 1승 4패로 뒤진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선두(4승 4무·승점 16점)에 올라 있다.

6월6일 이라크와 3차 예선 원정 9차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최종전인 6월10일 쿠웨이트와 홈 10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

축구협회는 앞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대비해 9월 A매치 상대를 물색해 왔다.

그리고 현지 적응을 위해 북중미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와 평가전을 성사했다. /뉴시스



“770명 철인들 한계 도전한다”

17일 정남진 장흥 전국 철인3종대회

장흥군은 오는 5월 17일, 전남 장흥 관음 삼산방조제 일원에서 철인3종 스포츠 팬들의 기대 속에 ‘2025 정남진 장흥 전국 철인3종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함께하는 770명의 철인들이 참가하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도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장흥군철인3종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국제 기준인 올림픽 코스로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체력과 인내력을 시험하게 된다.

장흥군과 장흥군철인3종협회 관계자들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현수막 설치를 완료했으며, 원활한 대회를 위해 마을 이장회의도 참석하여 지역 사회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장흥군 관계자들은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조제 3km 구간에 홍보 및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철인3종 경기에 대한 지면 확대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국에 노벨 문화도시 장흥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백성포만포지

溫故知新

2025. 5.29. (목) ~ 6.1. (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 법성포단오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부 KH 영광군수님 코비리빙

이정후, MLB 데뷔 첫 2경기 연속 홈런 황... 시즌 6호 아치

애리조나전서 7회 추격의 2점 홈런 폭발... 5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이정후가 이틀 연속 홈런을 쳤다.

이정후는 15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치러진 2025 MLB 정규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전에서 6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한 이정후는 MLB 데뷔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아치를 그렸다. 올 시즌 성적은 타율 0.286 6홈런 29타점 30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812다.

1회말 1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왼손 선발 투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3루수 파울 플라이에 그쳤다.

선두 타자로 나선 3회말과 5회말에는 각각 3루수 땅볼, 좌익수 뜬공을 물러났다.

이정후의 대표는 네 번째 타석에서 타졌다.

이정후는 팀이 4-8로 끌려가던 7회말 무사 1루에서 오른손 구원 투수 라

인 벨슨의 4구째 시속 139km 체인지업이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추격의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하지만 9회말에는 선두 타자로 등장해 좌익수 뜬공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말 2사 만루에서 대타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며 1점 차까지 쫓아갔으나 후속 타자 크리스찬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돼 경기를 뒤집진 못했다.

7-8로 패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25승 19패)는 2연승에 실패했다. /뉴시스

역도 장연학, 아시아선수권 남자 109kg급 합계 동메달

장연학(아산시청)이 2025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남자 109kg급에서 합계 동메

달을 차지했다.

장연학은 14일 중국 장산에서 열린 대

회 남자 109kg급 경기에서 인상 178kg, 용상 212kg, 합계 390kg을 들었다.

인상에서 3위, 용상에서 4위를 기록한 장연학은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 3위에 올랐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합계 기록으로만 메달을 수여하지만, 아시아역도선수권은 인상과 용상, 합계에 모두 메달이 걸려 있다.

이로써 장연학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우승은 합계 406kg(인상 183kg, 용상 223kg)을 든 우즈베키스탄의 아르바르 주리에프에게 돌아갔다.

2위는 395kg(인상 181kg, 용상 214kg)의 사로피딘 알리디노프(우즈베키스탄)다. /뉴시스